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우창



각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를 간접 선출의 방식으로 바꾼다고 한다. 직선제나 간선제 어느 쪽이 좋은가를 간단히 말할 수는 없는 일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따져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문화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한다.

직선제의 폐단은 선거 과정을 통하여 대학 내에 파벌이 생기고 학문의 이상을 손상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의 하나는 총장이 되는 것을 베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 있다.

대학의 목적은 흔히 말하듯이 진리 탐구이다. 대학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혼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행정작업을 맡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다. 이 방향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교수와 연구는 그것을 위한 여러 뒷받침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총장직을 맡겠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여 이러한 배후의 일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낸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공직겸 양, 사라졌는가

정치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치는 선악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의미의 인간행동의 영역이다. 얼마 전 영국 BBC가 트로츠키의 외손 자 에스테반 불코프와 회견을 가졌다. 만년에 스탈린의 정직인 된 트로츠키는 맥시코에 피신하였다가, 결국은 스탈린의 자객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불코프에 의하면, 멕시코 맘명 중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대체로 정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어린 손자

를 정치적 화제나 정치로부터 멀리 있게 하려 노력하였다.

그것은 참혹했던 그의 경험 때문이었기도 하겠지만, 정치의 복합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래 민주주의의 원조의 한 사람인 루소는 아동 교육을 논하면서 1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아동을 정치와 사회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 영예의 다툼이나 절대화된 정치는 대체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으로 나아간다.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인

데이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다.

정치는 원래부터 조금 더 개인적인 야망과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하겠지만, 정치 풍토에서 이러한 사려가 사라진 것도 한참 된 일이다. 정치에 나선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광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도입된 초기만 해도, 선거 포스터에는 ‘모모 선생을 국회로 보냅시다’라는 말들이 쓰였다. 본인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맡아달라고 권고한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 이었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진리의 수련을 쌓은 사람만이 통치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난점은 세상일을 맡아달라고 그러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사코 벼슬자리를 원하거나 스스로의 정당성과 역량을 과신하고 자랑하는 사람에게서 참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봉사를 기대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조영희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건들을 맡아 법정에서 소송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다.

필자가 들어가는 법정 중에는 성폭력전담 재판부가 속해 있는데, 그런 깊숙이 요새 천태만상의 다양한 성폭력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 상상을 뛰어넘는 으갖 반인륜적, 변태적, 가학적 성폭력의 흥수이다. 그 중 상당수는 면식범의 소행이다. 지인과의 술자리, 이웃 간 관계 속에 친분을 가장한 성폭력이 스며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판을 맡아 진행하다 보면 그러한 피고인들이 단골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혹은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안 보여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등이다. 곧이어 피해자를 향한 변호인의 집요한 반격이 이어진다. “같이 그 시간에 술 마신 것 보면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바로 뛰쳐나오지 않았죠?”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특별히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면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왜 좀 더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당황해서 말 몇 마디라도 잘못하게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통째로 훼둘린다. 법정에 앉아있는, 그들 중 다수가 남성인 재판 관계자들의 눈이 매섭다. 피해자는 한숨을 쉬고 계속 무언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해보지만, ‘왜’, ‘어떻게’라는 질문들만 계속된다.

피해자의 눈빛이 훼둘린다. 피해자 진술 속에 헛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눈빛도 함께 부지런히 움직인다. 긴 신문을 마치고 피해자는 하탈한 뒷모습을 보이며 법정을 나선다. 그들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일까.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속을 내보일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며 다시금 상처를 안으로 던져버리게 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둘러버린 성폭력 범죄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한다. 각종 매체의 영향과 여성들의 자의식의 성장 탓이라.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중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자체의 피해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의 노출 혹은 주변인들의 편견에 의한 피해, 이중의 고통인 셈이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세상의 일로, 내 가족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한번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보자. 환절기 감기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듯 불행한 사건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 가능성을 조급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접한 사건들을 토대로 나름의 주의사항을 생각해 보면,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지 않을 것’, ‘특히 술 취한 상태를 조심할 것’, ‘부득이 혼자 야할 때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갈 것’,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차에 타고 내리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것’, ‘집에 들어가려 할 때 뒤따라오는 움직임이 없는지 주의할 것’, ‘집에 들어와서는 전제 출입문을 꼭 잠을 것, 특히 화장실 작은 창문도 조심’.

그리고 혹시라도 불의의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낼 것’, ‘저항할 수 있다면 저항할 것’, ‘피해 상태 그대로 피해 사실을 신속히 신고할 것’, ‘심리치료를 받을 것’, ‘차지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세상은 불의보다는 정의가 앞서고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믿을 것’ 등이다.

태풍의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난 이중, 삼중의 상처가 쉬이 아물지 않겠지만, 시간은 흘러간다. 그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스미듯이 행복이 다시금 찾아올 것을 믿자. 그리고 그때까지 그들을 감싸주자.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따라서 항후 정부 보급종의 의존도는 더 높아져 바·보리·밀 등 주요 6대 식량작물 생산·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의무감 때문에 국립 종자원은 이상 환경에서도 높은 밭이율을 가진 종자생산과 종자원 최종 정책 고객인 식량 소비자의 육구 총족을 위해 좋은 밥맛이 오래 유지되는 프리미엄 종자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속에 이런 행보는 향후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수확의 계절이 다가온다.

지난해에는 종자사고로 힘들었으나, 올해는 ‘성형수술’로 더욱 예뻐진 정부 보급종으로 인해 황금빛으로 풍성하게 물든 들녘의 풍경처럼 농업인들과 농촌에 여유로운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기고



신동하

이제는 프리미엄 종자시대로 가야할 때

대됐기 때문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종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명예 회복을 위해 눈물나는 긴장감으로 지난 1년간 백의종군했다. 보급종 품질 및 제도 전반을 성형 수술해 견자 제도개선, 견사원 역량 강화, 정선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정제작, 품질고급화를 골자로 하는 프리미엄 종자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생산, 견사, 정선, 공급 및 사후관리 전 분야에 걸쳐 종자 가치를 충실히 만들기 위해 밭을 접경을 강화했고, 수확 직전 포장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불량종자 생산을 포장단계에서 원천 차단시켰으며, 밭을 저하하는 의심 제품이 발생 때는 전산경보가 발동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파종 직전 농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그리고 키디리병 등 예방으로 무병·건전한 종자 생산을 위해 최신의 살균처리 첨단 시설도 보강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견사원 능력 심화프로그램을 철저히 운영해 견사원 능력이 상향 평준화 되도록 했다.

지난해 종자 사고로 인해 관행적 실험실 위주의 견사·검정 업무를 과감히 탈피, 수

요자를 위한 혁신업무 위주로 전문성을 쇄신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제 종자 수요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종자 가치와 필요성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비해 수확분으로 식량을 제하고 남은 것으로, 내년 종자로 쓰던 주먹구구식의 채종 관행으로는 농업을 하나의 산업적 위치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 농업도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은퇴농이 발생, FTA 대응을 위해 광작 형태로 규모화됐고, 자가 채종종자의 밭을, 생산성 저하 문제 등으로 개별 농가로선 충실했던 종자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확의 계절이 다가온다.

지난해에는 종자사고로 힘들었으나, 올해는 ‘성형수술’로 더욱 예뻐진 정부 보급종

으로 인해 황금빛으로 풍성하게 물든 들녘의 풍경처럼 농업인들과 농촌에 여유로운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인면수심’ 성범죄자 처벌 이대론 안 된다

잠자던 초등생을 이불에 납치해 성폭행한 범인이 이웃집 사람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범 상당수가 피해자와 평소 가까운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나주경찰은 2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고모(2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나주 한 주택에서 잠자던 A(7·초교1)양을 이불에 납치, 300m 거리 떨어진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빈인륜적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솔방방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8.1%로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사법당국은 양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 대상 포르노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씨는 평소에도 모델이나 PC 방을 들며 어린이가 나오는 일본 포르노물을 즐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니 이미 예고된 아동 성범죄나 다를 바 없다.

고씨는 사건 당시 새벽 술을 마신 채 PC방에서 피해 어린이 어머니와 안부

대학 구조조정 재학생 피해 없도록 해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주 전체 336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23곳, 전문대 20곳 등 43곳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선 세한대(구 대불대), 초당대, 한려대 등 4년제 대학 3곳이 포함됐으며 전문대는 고구려대와 전남도립대, 한영대, 조선이공대 등 4곳이다.

특히 전남도립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돼 당장 내년 학기부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된다. 이들 대학은 또 내년에 실시되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도 늘릴 수 없게 된다.

해당 대학으로선 학생 모집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려는 수험생들은 응시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학 입학 예정자들의 숫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들어갈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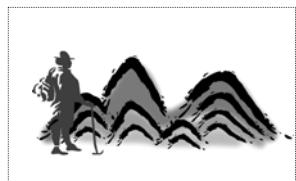
세계적으로 산악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다. 네팔과 파키스탄 카라코람 히말라야를 찾는 산악인이 연간 2000명에 육박하고, 인기가 높은 8,000m급 거봉에는 한꺼번에 10여개가 넘는 원정대가 물려 암벽 낭의 쓰레기로 배출한 탓이다. ‘히말라야가 세계에 가장 높은 쓰레기 애적장으로 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등산로에 줄지어 갈린 고정로프를 비롯 끊어진 텐트와 산소용기, 음식 물건, 수온건전지 등이 대표적이었다.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은 원정 후 자진 회수하도록 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 원정대는 드물었다. 한국원정대가 버린 쓰레기도 만만치 않았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높이만을 추구하는 등반 방식과 찾은 등정 시비로 인해 등반윤리도 재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난 2010년 하루 150~170kg에 달했지만 최근 100kg대로 줄었다고 한다. ‘티롤 선언’ 20주년을 맞아 자연과 타인을 배려하는 등산인의 자세를 가다듬어볼 때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티롤선언



산악인들이 지켜야 할 산악 윤리와 산에서의 활동 지침을 제정립한 것이다.

연간 탐방객이 수백 만명에 달하면서 여름 이면 오염에 신음하던 무등산 쟁사·봉우리 계곡이 확 달라졌다. 자연환경 복원 사업으로 노후 상가와 계곡, 주차장이 정비된 덕분이지만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등산객들의 의식변화다.